



2021년 2월 28일(제1024호) 시순 제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십자 나무 목발”

군대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말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고 가장 필요한 말이지만, 가장 듣기 힘든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군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지낸다는 것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죽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위로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도 나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한 사람, 한 영혼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나는 두 개의 보조 다리(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앉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날날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다. 바로 앞 차도에 한 아이가 뛰어들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빠가 보조 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 “아빠” 하고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 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 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사 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데 ...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 내어 온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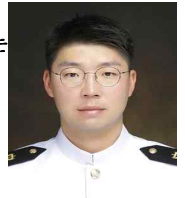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딸을 위해 자신도 똑같이 목발을 짚고 사는 삶을 선택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 한 사람, 바로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딸은 열등감과 좌절 속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목발이 필요 없는 아버지를 본 뒤, 아버지의 너무나 지극한 사랑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어 하느님이시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모습으로만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딸을 위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어, 더 나아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며 사랑하기 위해 ‘십자 나무’라는 목발을 짚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주님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우리 또한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주님처럼 변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 시순 제2주일을 시작하며, 이번 한 주는 매일 복음 말씀에 마음과 귀를 더 잘 기울여 봅시다. 이 복음 말씀들과 함께 군대에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파고들어 어둠의 절망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 나무’라는 목발을 짚고 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주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빛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최승범(베드로) 신부
정릉세리림(해병2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창세 22,1-2.9.10-13.15-18

회 답 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 독 시

로마 8,31-34

복음 반 호 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마르 9,2-10

영 성 재 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다섯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리브와 신부님께

(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21일

우리는 계획한 대로 에리곤호를 타고 우리의 선교지에 들어가기에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부님께 알려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주 엉뚱한 다른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 뒤에 우리는 산동 대목구장이며 강남 직할 서리구장이신 존경하올 플로렌티노 베시 주교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교님으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신자의 배를 마련하여 주셔서 약 보름이 걸려 우리가 목적했던 태장하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이 항해는 순조로워 아무런 역경도 당하지 않았고, 다만 북풍이 우리의 항진을 더디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네 사람 외에는 모두 신자들이어서 이들은 우리를 잘 대우해 주었고, 신부님들께서는 매일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 하셨습니다.

범 요한은 일을 주선하도록 요동 교우들에게 파견되었는데, 그는 그의 이름으로 두 요셉이라고 하는 회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공경하올 신부님들과 우리들에게 신부님들을 밤에 내리게 하는 일이 맡겨졌으나, 주변 상황이 이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환히 밝은 후에야 외교인들의 작은 배로 짐을 보내고 우리는 두 요셉의 안내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두 명의 선원들이 우리 배에 올라탔는데, 그들은 신부님들을 보고 서양 사람이라고 비웃으며 단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관에 접근하였을 때, 두 요셉은 저에게 신부님과 함께 방금 물이 빠져서 대단히 질퍽 거리는 강변에 내리도록 껌속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세관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신부님들이 세관에서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토마스(최양업)와 함께 세관으로 직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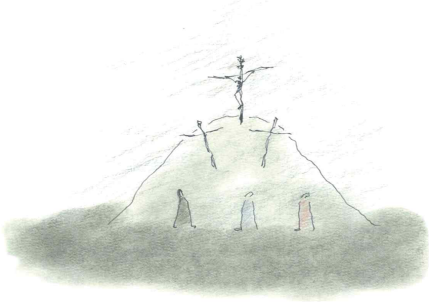
우리는 매스트르 신부님과 브뤼니에르 신부님, 2명의 선원들, 그리고 저까지 다섯 명이었는데, 모두 진흙에 발이 빠졌고 길도 아닌 곳을 허둥대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신부님들을 보고 영국인들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상화이야기

이시약의 희생



기베르티, 1401년~1402년 제작
45x38cm / 스티미리아텔 피오레 상당, 이탈리아 피렌체

기베르티의 이 작품은 오늘 제1독서 말씀을 충실히 묘사한, 청동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피렌체의 세례당 문을 장식할 예술가를 뽑는 자리에 브루넬레스키와 경쟁하기 위해 제출한 작품이다. (왼쪽이 브루넬레스키, 오른쪽이 기베르티의 작품)

아브라함이 이시약의 목을 잡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인데, 이 순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말린다. 왼쪽 상단에 덩불에 걸린 양이 보이며, 왼쪽 하단에는 수행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있다. 굉장히 작고 얇은 부조 공간에 기베르티는 역동적이고 공간감 있게(돌산과 제단, 그리고 덩불에 걸린 양까지 이르는 고개가 보인다.) 이 작품을 표현하였고, 결국 기베르티가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 덕에 브루넬레스키는 건축가로 전향해,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브루넬레스키의 돔'을 건축하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2주일: 해상대 박근혁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능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